

News

민주당發 금융규제법 쏟아진다...금융권 '초긴장'

파이낸셜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금융규제 입법 움직임이 가속화...페어펀드, 편면적 구속력, 최고금리 인하 등 각종 금융규제 입법 추진으로 금융권 긴장감 그 어느 때보다 고조...21대 국회에선 여당이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 만큼, 발의된 법안들 대부분 국회 문턱을 무난히 넘을 것으로 전망

신한은행 아로드리 펀드 투자금 환수 추진...현지 법무법인 별도 선임 완료

아이뉴스24

신한은행이 사모펀드인 아로드리펀드의 투자금 환수를 위해 보험금 청구를 다시 추진...펀드 운용사인 아로드리자산운용이 현지 법무법인 선임을 완료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돌입...조만간 법무법인과 함께 중국 태평보험사에 아로드리펀드 7호의 보험금 재청구 등을 추진할 계획

금감원, '폭풍성장' 카카오뱅크·토스 들여다본다

머니투데이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연내 카카오뱅크에 대한 검사에 착수할 예정...카카오뱅크가 금감원 검사를 받는 건 처음...검사는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이 아닌 리스크관리실에서 진행 금융당국은 짧은 기간 급성장한 두 회사를 상대로 각각 리스크 관리와 IT 부문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케이뱅크에 대한 검사는 내년 이후로 넘어가는 분위기

주식시장 상승에...보험사도 활짝 웃었다

이데일리

삼성생명, 2분기 당기순이익이 4,698억원으로 전년대비 44.8% 급증...영업이익은 5,500억원으로 전년대비 35.6% 늘었고, 매출액은 7조6,384억원으로 전년대비 8.2% 감소 미래에셋생명도 2분기 당기순이익이 454억원으로 전년대비 21.7% 증가...영업이익은 607억원으로 전년대비 64.5% 증가...변액보험준비금 2분기에 249억원이 환입

현대해상, 상반기 순익 1837억원 전년대비 12.1% ↑ ..."코로나 반사익"

뉴스1

현대해상,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으로 올해 상반기 호실적을 기록...보험영업손실은 3,73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4,030억원)보다 개선 관계자, "자동차운행량 감소 등의 효과에 따라, 자동차 손해율이 전년 대비 6%p 개선되고, 장기위험손해율도 보험금 청구빈도가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4.6%p 하락했다"

한화손보, 실적 반등... 2Q 순익 808% '경증'

머니S

한화손해보험, 실적회복에 성공... 2분기 호실적으로 상반기 순익이 전년대비 400% 가까이 늘어...2분기 당기순이익이 362억200만원을 기록 2분기 영업이익은 503억8,0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397.6%가 증가...관계자, "코로나19 등의 반사이익 영향으로 장기 및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된 점이 실적에 주효했다"

빅10 증권사, 하반기 수익구조 다변화 전략 '집중'

머니S

자기자본 1조원 이상 대형 증권사는 올해 하반기 리스크 관리를 위해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할 계획 대형 증권사는 투자은행(IB)부문을 강화해 수익구조를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수수료 위주에서 IB로 분산한다는 계획...엔택트(비대면) 마케팅과 사회책임투자도 새로운 화두

이재명 "공매도 금지 최소 6개월→1년 이상 추가 연장해야"

서울경제

"그동안 한국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 제도는 특정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로 활용되어 불공정거래를 양산시켜 왔다...공매도 금지를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추가 연장해야 한다" "증시 가격 조정 인위적으로 막겠다는 뜻 아니다. 주가의 지나친 변동성이 외국기관의 수익창출의 도구로 이용되면서 한국 금융시장을 위협한 상황에 빠트리는 것을 경계하는 차원이다"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